

창립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한화학회

대한화학회(회장 沈相哲)는 오는 5월 23일 롯데호텔에서 학회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대한화학회원, 원로화학인, 북한화학자, 화학관련학회 및 재계대표, 외국화학회 대표(IUPAC, FACS, 미국, 일본, 중국)가 참가하는 이번 기념식에서는 1부에서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포상 및 명예회원 추대가 있을 예정이다. 2부 기념강연에서는 원로화학인과 1977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일리아 프리고진교수(벨기에, 브뤼셀자유대학교)의 강연이 있다. 이어서 3부에는 미국·일본·중국화학회장의 축사와 함께 기념만찬회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동학회는 기념식에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연세대학교에서 창립 50주년기념 세계한민족화학자학술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노벨수상자를 포함하여 미·일·중학회장 및 IUPAC(국제순수 및 응용화학기구) 전임회장 등 국내외 화학기술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물리, 유기, 무기, 분석, 생화학, 고분자, 환경, 산학연, 고체, 전기, 의약, 공업, 교육 등 분과별로 나누어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동학회는 4월 25일~27일 3일간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제29차 공업화학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각종 기기분석법에 관한 강의와 실습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료도입법과 클로우방전법 및 표면분석의 분야도 포함하여 분석결과를 넓게 활용하고자 하는 관리자 뿐만 아니라 초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춘계학술대회 개최 및 사무국 이전

한국정밀공학회

한국정밀공학회(회장 李長茂)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양일간 동아대학교(부산)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첫날 산업체 견학과 둘째날에 정밀가공, 계측제어, 생산시스템, 공작기계, 마이크로머신, 자동화, 설계 및 재료 등을 주제로 논문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동학회는 지난 2월 22일 성북구 보문동에서 강남구 논현동 5-4 광명빌딩 306호(Tel:518-0723)로 사무국을 이전했다.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한국소음진동공학회(회장 洪性穆)는 오는 5월 10일 부산수산대학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술논문, 기술논문, 연구사례, 신기술소개, 연구동향, 연구예로기술 등이 발표되며 아울러 소음/진동에 관련한 계측장비, 소프트웨어, 방음/방진재료, 관련서적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도 개최한다.

한편 동학회는 지난 3월 15일 교정회관에서 '도로변의 소음현황 및 대책'이라는 주제하에 관계전문가를 초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임병덕교수(영남대 기계공학과)의 '방음벽의 원리와 도로소음에의 응용' 등 도로변 교통소음의 예측방법과 방음벽에 의한 소음저감방법에 관한 4개의 연구논문발표가 있었다.

국가연구소의 역할·방향 국제심포지엄 개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金殷泳)은 지난 3월12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국가연구소의 역할과 방향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연구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국가연구소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김은영원장의 환영사와 정근모과학기술처장관과 김영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최형섭회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Ernst-Günter Afting소장(독일, Helmholtz연구소), Akito Arima이사장(일본, 이화학연구소), Alan Schriesheim소장(미국, Argonne국립연구소)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김원장의 진행으로 정명세원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인수소장(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원), 김덕룡회장(국회과학기술연구원), 김진수회장(한국과학기술자클럽), 심상철회장(대한화학회), 여종기원장(LG화학기술연구

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있었다.

고분자기기 분석세미나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고분자학회(회장 李瑞鳳)는 지난 3월 20일부터 22일 까지 3일간 제18회 고분자기기분석세미나를 개최했다. 고분자분석에 사용되는 주요기기들의 원리 및 응용방법을 강의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분자의 구조 및 물성의 이해에 필수적인 구조분석기기, 분자량측정기기, 열분석기기, 전자현미경 등이 소개되었다.

세계 애완동물 특별전시회 개최

서울과학관

새봄·새학기를 맞이하여 국립서울과학관(관장 李康國)에서는 “어린이에게 꿈과 사랑을!...”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국내 최초로 살아있는 애완동물들의 한마당 잔치를 국립서울과학관 후원회 주최, 애완동물지널과 도그매니아를 발행하는 펫 저널사(대표 신창우) 주관으로 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했다.

특히,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으로 친숙했던 많은 동물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동물에 관한 의식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회는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돗개를 비롯하여 애완견 66종과 고양이 9종, 원숭이, 토끼, 햄스타, 쥐, 기니아피그, 미니피그, 고슴도치 등 포유류 89종, 그리고 민물고기와 관상어, 해수어 등 어류 2백10종, 손노리개새 등 조류 56종, 거북이, 이구아나, 뱀, 개구리, 거미, 전갈, 도마뱀, 제리빅, 집게 등 총 4백여종(3천여점)이 선을 보였다.

신임원장에 金世鍾씨 선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2월 16일 서울무역회관에서 임시이사회(이사장 李寬)를 열고 임용규원장 후임에 金世鍾 과학기술처 원자력실장을 신임원장으로 선임했다. 올 2월부

터 3년간의 임기를 맡게될 김세중 신임원장은 경북 금릉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원자력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과학기술처 원자력국, 동력자원부 전력국장 등을 거쳐 과학기술처 원자력실장에 재임하고 있었다.

초고속선도시험망 이용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한국전자통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소(소장 梁承羈) 컴퓨터연구단은 콤비스테이션을 초고속선도시험망과 연동시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그동안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해온 콤비스테이션과 ATM 다중화장치인 DANS를 초고속선도시험망과 통합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환경과 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연구개발 제품들의 실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초고속정보통신 시장개발을 촉진시켰다. 또한 연구소와 정보통신 유관기관간의 시간적·지리적 문제를 해결하여 상호기관간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축한 것이다.

이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은 자체 개발한 ATM 네트워크 플랫폼상에서 콤비스테이션을 이용해 현재 ATM응용서비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데스크탑영상회의시스템을 선보임으로써, ATM과 멀티미디어 응용 서비스의 통합인 ATM 이용 기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자·음성 정보검색장치 개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인규교수팀은 음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문자·음성에 의한 검색시스템」을 개발했다. 고박사팀은 (주)코텍과 2년간의 공동연구로 문자인식시스템(리텍스)과 음성인식시스템(하이렉스)을 각각 개발하고 이들을 데이터베이스와 통합해 정보검색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음성으로 데이터베이스정보에 대해 질의하면 음성인식장치는 이를 인식해 명령어일 경우 해당 명령을 실행하고 명령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로 전달, 검색

함으로써 마우스를 대체하게 된다.

이와함께 스캐너를 이용해 프린터는 물론 손으로 쓴 문서의 자동입력도 가능케 된다. 이 시스템은 특히 불특정인의 목소리는 약 4백단어, 컴퓨터에 미리 입력한 목소리는 3천4백단어 정도 인식하며 인식률은 각각 95%, 98~99%에 이른다고 고박사는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윈도95와 윈도3.1, 윈도NT 등을 OS로 사용한 PC버전과 각각 솔라리스를 OS로 한 워크스테이션 버전으로 각각 상품화돼 올해 상반기중 코테크사를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고박사는 문서인식 및 음성인식 기능이 독립적으로는 큰 상품적 가치가 없어 이들을 통합한 정보검색장치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기총회 및 원로회원추대식 기행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趙完圭)은 지난 2월 29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9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9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감사보고), 종신회원 및 정회원선임 수입(안), 정관개정(안), 종신회원 등이 승인됐다. 종신회원 후보는 지난 2월 15일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선출되어 2월 27일 제1차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된 기우항 교수(경북대)등 이학부 3명, 공학부 3명, 농수산학부 1명, 의약학부 3명 총 10명이 선정됐다.

한편 정기총회에 이어서 지난해 10월 14일 한림원운영위원회에서 추대된 이학부 16명, 공학부 18명, 농수산학부 6명, 의약학부 8명, 정책연구부 2명, 재외교포과학자 7명 등 총 57명의 원로회원추대식이 閔寬植과총명예회장, 金基衡한국과학기술원이사장, 韓相準한양대명예교수, 吳鳳國서울대명예교수, 洪文和서울대명예교수, 咸仁英미국펜실베니아주립대명예교수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지용 오염방지제 개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종해박사팀은 자경산업과 공동으로 제지용 오염방지제를 개발했다. 통상적으로 제지공정중에서

의 오염물은 원료펠프나 폐지의 재생과정을 통하여 공장안으로 유입되거나 로진사이즈제 등 여러공정 첨가제의 과잉 사용 및 용수 등을 통해서도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오염물은 공정중의 일정부위에 흡착되어 종이의 품질 및 생산성 저하 뿐만아니라 각종 장비에 투입되는 소모품의 수명과 관리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제지공정에서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유기용매나 가성소오다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염물을 제거하면 조업을 단축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생산성이 감소되며 강한 세척제의 빈번한 사용으로 기계의 수명도 단축된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제지공정중 원질부분에서 원료와 함께 첨가하여 각종 오염물의 침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오염방지제로서 양이온성과 음이온성 오염방지제 두 종류를 개발했다. 이 제품의 성능은 시판되는 고가의 외국산 제품보다도 그 제어능력이 우수하여 관련 약품의 수입대체효과가 예상된다.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로 재생종이 등의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과 제지공정에서의 오염물 감소로 인한 전체 공정관리비용의 절감이 예상되며 기술보호를 위해 두 종류의 제지용 오염방지제에 대하여 우선 국내특허를 출원중에 있다.

기관명칭 변경 및 이시장에 曹圭河씨 선임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曹圭河)은 지난 3월 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에 따라 기관명칭을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변경했다.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범국민적인 이해 확산과 친화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문화'를 창출하고자 개정된 이번 정관에서는 상근이사장제를 도입, 曹圭河 전 전남도지사를 선임했다.

3월 15일부터 3년간의 임기가 시작된 조규하 선임이사장은 순천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 한국일보사 정치부기자, 동아일보사 정치부장대우,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전남도지사 등을 역임했다. ⑤7